

# 불교잡지 '불광' 제2창간

## 판형 키우고 올컬러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

38년간 불교계 잡지를 대표해 온 월간 <불광>이 제2의 창간을 선언하며 새롭게 바뀌었다.

불광출판사(주간 류지호)는 구매품 26일 수송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신년호부터 판형을 키우고 올컬러로 발행하는 등 디자인을 바꾸고 문화 콘텐츠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월간 <불광>은 리뉴얼에 따라, 판형은 기존 150\*210mm 크기에서 올컬러 171\*248mm 크기로 더 커졌다. 7년 만의 판형 변경이다. 2005년 이전 판형은 1974년 창간 이후 22년간 4\*6판(130\*190)을 유지했다.

커진 외형 만큼 내용도 충실해졌다. 신년호부터는 >사회 저명인사들의 인연 이야기 '내가 만난 불교'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특집'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재미난 일상이야기를 다룬 '강원일기' >하지권 사진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지구촌 불교 성지' >차 전문가 지허스님이 전하는 '한국인의 차' >불교 예술가를 만나는 'ART & HEART'와 '명장의 고집불통(佛通)' >사회 이슈를 통찰해 보는 '사색의 딸' >납카로운 시선으로 짚어



제2창간 선언한 '불광' 신년호

보는 세상이야기 '범인 스님의 병 주고 약 주기' >전문가를 통한 고전의 재해석 '고전산책' >부처님 핵심 가르침을 꿰뚫어보는 '불교, 정확하고 명쾌하고 자유롭게 등 새로운 콘텐츠가 담긴다.

월간 <불광> 2012년 1월호에는 리뉴얼에 맞춰 특집 '불교, 웃고픈을 고쳐 매다'가 기획됐다. 특집에서는 '화보-상도선원의 리뉴얼'과 미항사 불광사 보원사 등 사찰의 리뉴얼 기사, '도법 스님이 말하는 불교와 조계종의 리뉴얼' '대장경의 리뉴얼' '불교용품의 리뉴얼' 등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만난 불교' 코너에서는 최재전 변호사가 자신의 불교 인연담을 소개했다. 'ART & HEART'에는 패션디자이너 이기향 교수가 창조적인 패션 디자인 스토리를, '명장의 고집불통(佛通)'에는 누비장 김해자 선생이 인생과 누비 이야기를 전했다. 리뉴얼에 앞선 9월에는 아이패드 전용 버전을 출시해 어플 'Magazine Plus'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불광>은 아이패드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콘텐츠 제공을 준비 중이다.

월간 <불광> 양동민 편집부장은 " <불광>은 불교전문대중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며 "불자는 물론 일반 독자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간 <불광> 제작비 상승 등을 고려해 구독료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독자 needs 모두 담았다

### 월간 '불광' 류지호 주간

"디지털 시대 시각화된 독자 구미에 맞춰 판형과 콘텐츠들을 개편했다."

월간 <불광> 류지호 주간은 구매품 26일 수송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불광>이 '제2의 창간'이라 밝힐 만큼 외형·내용 모두 변화하기까지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컸다. 류지호 주간을 비롯해 양동민 편집부장, 유철주 취재팀장 등은 수백여 종의 국내외의 잡지를 분석했다. 개편이 있기까지 주2회 3~4시간 이상씩 회의를 열었다.

3개월 동안의 회의 결과, 보여줄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디지털 시대에 시각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해 사진 등 화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비 상승을 감안하면서도 판형을 키우고 올컬러 발행을 결정했다.

류지호 주간은 "이번 개편은 대내외적으로 역사성과 전문성, 내용성을 인정받는 <불광>이 급변하는 디지털문명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100자 뉴스

### 불국사 대웅전 등 3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경주 불국사 대웅전(慶州 佛國寺 大雄殿)',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慶州 佛國寺 架構式 石築)'과 '논산 노강서원 강당(論山 魯岡書院 講堂)'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구급 30일 지정했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불교문화재 기초조사 사업의 하나로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금동불 자료를 모아 <신라의 금동불>을 발간했다. 책에는 황룡사지 등 경주 지역 내 신라의 옛 사찰 등에서 발굴된 86점에 관한 연구 자료가 수록돼 있다.(054)777-8853

조동섭 기자

### 조계종, 태국에 3차 구호대 파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태국 홍수피해 구호를 위한 제3차 구호대를 파견한다고 구급 27일 밝혔다. 3차 구호대는 의료구호를 중심으로 1월 4~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을 단장으로 18명의 복구팀이 아우타야, 돈무앙, 나팜파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과 지역사찰 구호활동을 펼친다.

한편, 태국 현지에서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본부 협조로 현지인 50명과 한마음선원 봉사대 10명, 재 태국 한인회 등 다양한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박기범 기자

### 광주전남불교전법단, 남북평화 위해 한마음 기도

광주전남불교전법단(공동대표 도제·원광)은 구급 28일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행법스님(前 선덕사 주지), 법선·도제·원광·법능스님을 비롯해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길 위원장(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등 사회단체, 불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주정기 전북포교사단장 취임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구급 25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제6대 주정기 지역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과 금산사 포교국장 제환 스님, 전북지역 활동포교사,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등 200여 불자가 동참했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 재가연대, 이수덕 직무대행 체제로

김동건 상임대표가 사퇴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수장을 이수덕 공동대표가 한시적으로 맡게 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구급 21일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수덕 상임대표가 정기총회 전까지 직무대행을 맡아 재가연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출가자 보험 가입시 수익자는 사찰로 지정

종단 소속 승려의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귀속을 시행 중인 조계종이 지난 6월 입적한 현종 스님의 유증 내용 집행결과를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급 27일 현종 스님(前 삼성암 주지)의 유언장 집행 내용을 밝히며 "종단의 유언장 제도는 스님들의 출가 수행생활 동안 형성된 삼보정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계종은 현종 스님의 입적 이후 금융기관 금융조회,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 스님의 예금 등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예금 1000만원은 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시키고, 스님 명의로 관리되던 삼성암 기금은 삼성암에 양도했다. 그러나 보험(공제)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공제보험 5000만원은 속가 상속인이 상속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종단은 스님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사찰 또는 종단으로 지정토록 안내홍보와 행정지침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개인명의 통장이라도 사찰 관련 재정이 것이 확인되면 후임 주지에게 정확히 인수인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경제문제 정통한 정치인 없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경기호전위한 불자 역할 주문



난 베이비붐 세대가 생계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에 나선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고용대박이라고 발표하다가 곤욕을 치렀다.

"경제 문제는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후)가 주최한 제35차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구급 27일 강연했다. 템플스테이회관 문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선 소장은 저급리 고풍을 감세법인세 인하 등을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했다.

선 소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3%는 완전 고용상태에 가깝다. 대졸 미취업자와 파산한 자영업자가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된다. 한국은 2000년대 내내 실업률이 3%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증가한 일자리 50만개 중 49만개가 자영업 증가다. 직장에서 쫓겨

난 선대인 소장은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세균혁명당을 발족하고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고 강조하는 이유다.

선 소장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결국 나라 살림살이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유능한 개인이나 지인 네트워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 풀뿌리 대중 동력이 결합될 때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자승 스님,故김근태 고문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구급 3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스님은 김근태 고문의 부인 인제군 여사에게 "이시대 민주주의는 김 고문님 덕분이다. 종단도 슬픔을 같이 하겠다"고 위로했다.

박기범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은누리에

#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